

# 질푸른 바다 누비는 환상의 크루즈

‘클럽하모니’ 국내 정통 선박여행 물꼬 터



중세의 군함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클럽하모니 전경.

길이 176m, 폭 26m, 무게 2만6천톤의 정통 크루즈선 클럽하모니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축구경기장 2개를 합친 넓이에 승객 1천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야외수영장, 극장, 병원, 스파, 조깅트랙, 피트니스클럽, 키즈클럽 등을 갖추고 있어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취향에 따라 크루즈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다.

**인**링이는 바다를 배경 삼아 맘껏 노니는 야외수영, 질푸른 바닷물을 보며 느긋하게 즐기는 식사,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눈 녹듯이 씻어 주는 스파... 등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는 색다른 즐거움들이다.

하모니크루즈(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통 크루즈용 선박 '클럽하모니(Club Harmony)'를 선보였다. 길이 176m, 폭 26m, 무게 2만6천톤으로 축구경기장 2개를 합쳐 놓은 규모다. 중세의 군함을 형상화한 디자인 덕분에 자태가 웅장하며 내부는 각각의 공간마다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등 유럽식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움을 한껏 뽐냈다.

총 9층으로 구성된 클럽하모니는 객실이 모두 383개로 승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선내에 설치돼 있는 야외수영장, 대형 극장, 고급 식당, 병원, 스파, 조깅트랙, 피트니스클럽, 키즈클럽 등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아이에

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승객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환상적인 크루즈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다.

하모니크루즈는 2010년 11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크루즈 전문 선사로 크루즈 면허 취득 1년여 만인 올 2월 첫 항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크루즈 관광 육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행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지금 클럽하모니의 활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클럽하모니 취항식.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크루즈 관광 육성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클럽하모니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 총 9층으로 구성된 클럽하모니는 객실이 모두 383개로 승객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2.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크루즈는 향후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큰 성장이 예견되는 분야의 하나다.
3. 항공기 여행에 비해 깊이 싸면서도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의 가치와 경쟁력은 선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수준에 좌우된다.



## 외국 선사 물렸거라, 한국 선사 나가신다

국내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아직까지 낯선 편이지만 클럽하모니는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거침없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월 초에는 1박2일의 시험 운행을 거쳐 2월16일 첫 일본 항로 취항을 성공리에 마쳤다. 아직은 부산항에서 출발해 큐슈, 오사카 등지를 오가는 일본 항로만 뛰고 있으나 올해 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크루즈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클럽하모니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인을 위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정통 크루즈선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는 대부분 배를 타기 위해 해외로 일부러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탓으로 한국인들이 선상 생활에서 외톨이로 걸도는 등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클럽하모니는 그러나 한국인 승무원들이 많으므로 언어

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일정이나 고객에게 제공되는 공간과 서비스 등에 한국의 휴가문화와 한국인의 문화적 취향이 꼼꼼하게 배려돼 있어 마음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다. 음식만 해도 김치, 불고기, 잡채처럼 익숙한 입맛의 한국 요리가 기본이고 여기에 일본, 중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의 색다른 맛을 함께 선사하고 있다.

하모니크루즈 관계자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크루즈는 향후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큰 성장이 예견되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인에 알맞은 크루즈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류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류 관광상품을 개발해 한류문화의 확산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4. 한국인을 위한 크루즈답게 한국인의 휴가문화를 배려한 여행일정을 비롯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나 서비스 등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5. 클럽하모니 내부는 각각의 공간마다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등 유럽식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 크루즈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서비스

항공기에 비해 값이 싸면서도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 하지만 크루즈라고 하면 선박의 규모부터 따지는 이들이 많다. 하모니크루즈는 이에 대해 크루즈의 참다운 가치와 경쟁력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선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먹을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에서 품격 있게 차별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클럽하모니는 이에 따라 한국인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이국적인 여행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독특한 ‘색깔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크루즈의 특징 중 하나는 오전에는 목적지에 도착해 관광을 즐기고 오후가 되면 다시 배로 돌아와 편하게 쉬고 즐기며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 안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전체 관광 일정에서 무척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한다. 배 안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은 필수다.

클럽하모니는 3박4일 또는 4박5일의 여행기간 내내 각국의 정통 요리를 제공하며 저녁이면 이국적인 디너 파티를 열어 여행의 정취를 듬뿍 살린다. 때로는 화려하고 세련되게, 때로는 편하고 캐주얼하게 주어지는 드레스 코드(dress code)에 맞춰 파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 여행객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다는 것도 크루즈만의 장점이다. 함께 어울려 파티에 참가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폭넓은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마련이다.

클럽하모니는 이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어교실을 비롯해 재미있고 유익한 어린이 전용 행사와 공연, 아기들을 돌봐주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도 다수 탑승하므로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객과 친해질 기회가 많은 점도 크루즈만의 매력이다.

베이비시터제도 등이 그것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승무원들이 감독하므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자기만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

한국인 승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들에게서도 호평이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은 “비록 한국 선사가 운용한다고는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크루즈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며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선사들은 현재 3개의 크루즈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적인 크루즈선들이 아시아 항로도 운항하지만 이용객 대부분이 중국인인 탓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이 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클럽하모니를 찾는 한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튼튼한 선체 · 4개 엔진으로 안전성 높여

클럽하모니가 처음 건조된 것은 1968년 핀란드의 트루크조선소에서다. 애초에는 여객선으로 설계됐으나 도중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컨테이너선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선체는 더욱 튼튼하게 보강됐고 엔진이 4개나 장착됐다. 컨테이너

선은 대부분 엔진을 2~3개 탑재하는 관행에 비춰 볼 때 엔진가는 크루즈용으로 개조하려는 계획이 그때부터 이미 반영돼 있었다는 게 하모니크루즈의 설명이다.

크루즈선 개조는 1988~90년 이탈리아 매리어트조선소에서 이뤄졌다. 당시 외부 선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새롭게 고쳤으며 북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빙해(氷海)를 여행하는 항로를 고려하다 보니 무게가 여타 크루즈선에 비해 1.5배 정도 무거워졌다. 그만큼 비용은 더 들어갔지만 안전성은 훨씬 더 우수해졌다는 얘기가.

클럽하모니의 선박과 호텔 관리는 브이쉽(Vship)에서 대행한다. 모나코에 본사를 둔 브이쉽은 1천여 척의 선박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최고의 선박 관리 전문회사다. 일반적으로 크루즈선은 시설은 물론이고 세세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가 일일이 점검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 무척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클럽하모니는 브이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힘입어 보험 가입 기준을 거뜬히 충족시켰다는 후문이다. **m**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사진제공\_ 하모니크루즈



## “안전하고 즐거운 크루즈에 만전 기하겠다”

한희승 하모니크루즈(주) 회장

### Q | 국내 정통 크루즈만의 장점이라면?

**A** | 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와 달리 선박 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고객을 충분히 배려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한다. 한마디로 한국적인 동시에 이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 Q | 크루즈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텐데.

**A** |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대형 크루즈선 침몰 사고로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규모 여행객을 태우는 크루즈선은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다. 크루즈선에는 대개 선장이 2명 탑승하지만 클럽하모니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3명 배치했다. 평소에는 물론이고 만약의 위기 시에도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Q | 크루즈선의 사고 발생률은 어느 정도인가?

**A** | 최근 100년간 5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모두 1천7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에 비하면 사고 발생률이 훨씬 낮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다. 과실과 화재가 가장 전형적인 사고이며 대부분 부주의에 따른 인재로 알려져 있다.

### Q | 새로 건조하지 않고 오래 된 선박을 재개조한 이유는?

**A** |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정통 크루즈선인 만큼 새로 건조했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하지만 크루즈선 건조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크루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미한

국내 시장에서 무조건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에 대한 안전 보장이고, 두 번째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재개조를 택한 것이다. 클럽하모니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1968년 핀란드에서 건조된 후 1990년 이탈리아에서 크루즈용으로 재개조되기까지 단 한 건의 사고 기록도 없었다.

### Q | 한 대뿐인 크루즈용 선박을 더 늘릴 계획은 없나?

**A** | 물론 2호선 도입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이제 막 출항한 1호선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듯하다. 클럽하모니 운영이 순조롭게 정착하면 올 상반기에 2호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Q | 중국과 러시아 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 우선은 일본 여행 위주로 운항하며 중국은 올 하반기부터 한두 달에 1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쯤에는 날씨를 고려해 러시아 항로를 펼 계획도 갖고 있다.

### Q | 앞으로의 목표는?

**A** | 일단은 눈앞의 이익보다 투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익을 내는 것은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8년에 열리는 강원도 평창올림픽 때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우리가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한국인의 다양한 여행 기호에 부응한다는 측면이 크지만 이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올해 안에 8만 명 이상의 여행객을 모집하는 게 당면 목표다. **m**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